

어린이집 보육료 수십억대 부정 수급?

나주 상당수 시설 아동수 숙여 보조금 타내는 등 민원제기

市 2개월 조사하고도 일체 함구... 증거 짜맞추기 단속 의혹

나주시 관내 상당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나주시가 2개월간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도 관련 내용은 일체 함구하고 있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2035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육비로 49억여원을 비롯해 교사 보조수당 등으로 47개 어린이집에 총 11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A 어린이집이 특

정 아동을 보육한 것처럼 3년간 보육료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계기로 나주시가 2개월째 관내 47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의 지도점검 항목은 3가지로 회계관리 실태를 비롯해 부정아동과 부정교사 및 물품구매 실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는 정작 이번 사건을 놓고 2개월째이나 장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가 400여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십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같이 나주시가 현재 지도점검인 상태를 내세워 관련 자료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어 사건을 축소하는 등의 비주기식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k(49·나주시 노안면)씨는 “지도점검 기간이 2개월째이나 장기 이뤄지다 보니 도리어 관련 증거를 짜맞추는 단속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 47개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인들을 통해 사전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수년 전부터 이뤄졌는데도 나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간의 실태만을 점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의 경우 보육현원 기준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출석일수에 따른 지원금 생성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 비주기식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공정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필기자 srchoi@

천년의 비색 고풍스러움에 편리함까지...



강진 청자박물관 실생활 도움주는 이색 청자 출시

강진 청자박물관(관장 신상식)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색 청자제품을 선보였다.

강진 청자박물관은 최근 고려시대의 기록과 고증을 거쳐 '원샷 잔'(청자 술잔)과 청자 고유의 비취빛에 금가루를 장식한 '화금청자', '화병' 등 아이디어 청자 작품을 출시했다.

'원샷 잔'은 옛날 전정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팽이같이 생긴

잔을 이용했는데 주로 말 위에서 사용하는 잔이라 해 '마상배'라 불렀다.

특히 '원샷 잔'은 술 물리기 좋아 하는 한국인 취향에 맞춰 청자잔 하단부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 한사람이 오랫동안 잔을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했다.

'화금청자'는 청자로 만든 매병과 주병, 향아리, 다기 등의 작품을 한 번 구워낸 뒤 고운 금가루로 무

늬를 넣어 높은 열로 다시 한번 더 구워낸 것이다.

이와 함께 청자로 만든 다양한 모양의 꽃병(화병)과 냉면그릇, 접시, 머그잔 등의 다양한 생활자기도 함께 출시했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올해부터는 국보급 유물의 재현품 위주에서 생활자기의 비중을 확대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작품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경찰, 전의경과 소통 화합의 장

강진경찰이 최근 전·의경과 함께 하는 산행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6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최근 임광문 서장과 전·의경 8명은 강진을 보은산 우두봉(높이 439m)을 함께 등산하며 복무중 겪는 애로사항과 사기 진작, 복무생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광문 서장은 “전·의경부대대 구타, 가족행위 등 생활하면서 느끼는 아픔을 근절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대원들에게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클릭하면 '귀농 정보' 한눈에

장성군 귀농인 인터넷 복덕방 운영

장성군은 귀농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귀농인 인터넷 복덕방'을 운영한다.

장성군은 농촌신활력 귀농인 육성과 전남도 귀농 1만 가구 유치 목표에 발맞춰 '귀농인 인터넷 복덕방'을 구축·운영키로 하고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관내의 빈 주택과 농지, 시설하우스, 축사, 농기계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 군은 수집된 자료를 귀농인 인터넷 복덕방 게시판인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welcome.jangseong.go.kr)에 제공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귀농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읍·면에 귀농 전담인력을 배치해 귀농관련 내방인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장성군 관계자는 “귀농인 복덕방 운영으로 농지 및 농업관련 시설물 매매 및 임대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정착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귀농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여럿이 먹으니 밤 맛 참 좋아요

나주 농번기 공동급식 '인기'

나주시가 농번기에 일손이 바쁜 농촌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호평에 따라 대상마을을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160곳으로 크게 늘렸다. 시는 올해 2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 77개 마을 등 연내에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 다.



이 사업은 모내기, 배 열매 봉지 씌우기 등 농사일로 한창 바쁜 마을에 급식 도우미를 지원, 새참이나 점심 등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더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예전에는 들일을 하다가도 점심 때면 집으로 돌아와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 걱정을 덜게 됐다.

남평읍 수원리 신금마을 이상현(50) 이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철에 식사걱정하지 않고 마을 농업인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모여 점심밥을 먹다 보니 주민 단합도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전 북

지리산권 관광 정보화 시스템 구축

7개 시·군 관광개발조합-관광공사 업무 협약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본부장 구영복)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최근 남원시 향교동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회의실에서 지리산권 7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한국관광공사에 지리산권 정보화 사업을 위탁해 지리산 등산로 및 둘레길, 주변 관광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정보 서비스를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과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 3D 지리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등산안내를 선보여 관광객이 실제 지형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길안내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망이 단절되기 쉬운 산악

지형을 반영해 미리 다운로드된 지도를 GPS 데이터만으로 이용하거나 이동 경로 예상시간 및 길 안내전화와 연결 등 등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 구간 역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친환경 에코빌리지 등 지리산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수록된 '디지털 투어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디지털 투어가이드 서비스 콘텐츠는 방송 작가와 전문성우가 참여해 지리산의 천연 자연생태와 반달곰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체험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다문화 가정의 전통혼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는 반딧불 축제 행사일정으로 지난 4일 무주를 전통공예 테마파크에서 다문화 가정 4쌍에 대한 전통 혼례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전북도 서비스산업 메카 만든다

관광·스포츠·여가 등 전략산업 육성 추진

전북도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본격 육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복되는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09년 기준 전북도 총생산의 64.3%, 전체 고용의 68.6%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 산업분야로 도의 취약계층의 고용 및 지역경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서비스산업은 1999년 대비 2008년도 기준으로 서비스업체 수(7만6270 → 7만3815개)는 감소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19만1명 → 23만6070명) ▲매출액(9조원 → 22조5000억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서비스산업이 대형화 돼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관광, 컨벤션, 패션사업 등을 집중 육성 중이며, 부산은 영상IT산업, 관광산업 등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경상북도 역시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산업, 유통 서비스업, 건설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전북도는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지역간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LQ지수'와 서비스산업 세부분야별 성장률을 통해서 전북도의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서비스산업 중 ▲사회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관광서비스 분야가 강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음식 및 주점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등이 전국대비 특화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전략서비스 산업분야 육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

특히 고용창출이 높은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 전북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기준으로 전북발전 연구원과 함께 서비스산업 중점 육성분야를 올 12월까지 선정해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5대 유망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가를 위해 '전북도 서비스산업 육성계획'과 '분야별 액션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한지제조 전문인력 양성 수강생 모집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0일까지 한지 관련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한지제조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2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한지 관련학과 졸업생(예정자 포함) 및 일반인이다. 이번 양성교육은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7주간 매주

목·금요일 4시간씩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한지제조업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초빙해 ▲전통한지 제조(외발, 쌍발뜨기) ▲공예용한지, 창작한지 제조기술 ▲압착, 건조하는 방법 등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문의(063-281-1531)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 '그리움을 찾아' 매주 목요일 상설 공연

익산시는 매주 목요일 '그리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테마의 상설 공연을 마련한다.

이달에는 ▲9일 익산시 백제가 야금 연구단(그대에게 가고 싶은 별하나) ▲16일 현대무용단 사포(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익산시 페르보이 앙상블(해설과 함께하

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 ▲30일 익산시 시립풍물단(함께하는 자리 하나 되는 풍경) 등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목요일상설공연은 오는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 개설

군산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2일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에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대학, 직업전문학교, 일자리 유관기관 등 일자리 관련 협의체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구직자에게 ▲새만금 산업의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주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교육기관 알선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시민 소통창구 민원실에 '신문고' 운영

김제시는 소통행정 일환으로 지난 3일 종합민원실에 '시민신문고'를 설치하고 제막행사를 가졌다. '시민신문고'는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이 시정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문고함에 넣으면 시는 매일 건의사

항을 회수해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게시하는 소통시스템이다. 시는 시민신문고를 운영한후 성과가 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각종 행사시 이동 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영·호남 '흥과 신명의 만남'

남원민속국악원, 부산국악원 초청 교류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지역간 문화활성화와 레퍼토리 확산을 위해 8일 남원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교류공연을 갖는다.

부산국악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영남의 흥과 신명'은 부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을 다양하게 엮은 공연이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경남 통영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승전무'와 부산시 무형문화재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가야금과 해금 병주로 선보이고 부산 동래 지역

에서 전승되고 있는 '동래학춤' 등을 무대에 올린다.

또한 영남지역 예전 통명, 고성농요 등 노동요를 묶은 '영남의 노래모음곡'과 해안의 지리적 특수를 잘 나타내는 '수영어방놀이' 등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다른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부산의 음악과 춤이 남원에서 선보이게 돼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전통문화를 알리고 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